

'노년공포증'에서 벗어나야 할 출판

'어버이날' 계기로 본 실버출판의 가능성

어버이날이 되었으니 카네이션과 함께 부모님께 책을 선물할 생각으로 서점에 나섰다면, 큰 낭패를 보기 쉽다. 그 많은 책 중 순수하게 50대 이상을 위해 만든 책은 서가 한칸을 채우기조차 힘들 정도다. 그 사실에 놀랐다면, 서점의 어느 코너에서 노인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맞춰 보라. 대형서점에서 노인을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일본원서 코너다.

해마다 5월이면 대형서점은 어린이날과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로 분주하다. 통로마다 마음에 드는 그림책을 고른 아이들의 함박웃음으로 가득 차고 오랜만의 서점님들이로 피곤해진 부모의 얼굴이 그래도 즐겁기만하다.

하지만 일년 중, 노부모를 위한 책을 위주로 행사를 여는 서점은 단 한군데도 없다. 교보문고 위성계 대리는 "권할 만한 책도 없을 뿐더러 책선물을 원하는 노인분도 없는 듯하다"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출판계는 노인계층을 수요층으로 보지 않는다. 구매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출판시장에서 노인계층은 무의미?

현재의 노인계층이 과연 출판시장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 이들의 경제력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 노인 의전화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58.6%가 생계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60.8%는 수입이 전혀 없고 45.0%는 용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들 중 78.2%는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의 29.8%, 미국의 2.4%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이다.

책에 대한 욕구 역시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노인계층은 노화로 인해 독서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노인복지정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만의 특성도 한몫한다.

올 2월부터 '경로당을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대전 한밭도서관의 방미숙 사서는 "주로 책을 읽어주는 데 주력한다"고 말한다. 그 까닭은 문맹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가 책의 내용보다는 책을 읽어줌으로써 해서 생기는 사서와 노인



열명 중 한명꼴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내년부터 노인대상 출판의 가능성은 커진다. 은퇴를 위한 준비, 수입 계획,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욕구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간의 친밀감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나마도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많이 축소됐다. 대한노인중앙회 김동술 사업국장 역시 "생활이 안 되는 분이 많은 관계로 복지 증진에 관심이 더 많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1차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실에서 노인들이 책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노인을 위한 책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방미숙 사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들려줄 만한 책이 없다는 점이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를 주로 읽어주지만, 방사서의 말 그대로 노인들은 "그다지 새로운 사실을 알려는 욕구가 많지 않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림이 많은 화보집을 많이 활용한다.

노년공포증 깨는 변화의 조짐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화사회가 되는 2천년대 초반이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지난해 10월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서울대 최성재 교수는 21세기 고령화사회의 특성으로 경제적 여건 개선, 의존적인 생활주기에서 보편적 생활주기로의 변화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경제적 욕구보다는 기타 욕구가 더 증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출판계 역시 이런 변화에 동의한다. 올해 72세인 박찬기씨가 쓴 《40대를 위한 컴퓨

터》를 펴낸 사이언스북스의 장은수 편집장은 "컴퓨터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을 타겟 독자로 설정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자신과 비슷한 연배로 뒤늦게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다는 글쓴이의 생각과는 달리 비록 40대로 연령층을 많이 낮췄지만, 제목에 죽음이나 노년을 언급하기 꺼리는 출판계의 '노년공포증(gerontophobia)'을 정면으로 돌파한 셈이다.

노인 대상의 출판이 활발한 일본에서는 이미 《대왕생》·《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 등 몇 권의 노후생활 관련 베스트셀러가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너무도 쓸쓸한 당신》이 있다. 노년이나 죽음을 다루면 안된다는 금기사항을 깨긴 했지만, 이들 책의 독자가 대부분 20대였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몇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보인다. 올해 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는 '노인을 위한 UN 원칙' 중 자아실현의 원칙에 입각해 노후생활지침·노인정보·자서전 등을 담은 노인관련 출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노화학회 박상철 회장의 《건강보다 참된 것은 없다》(산학연21), 소노 아야코의 《100년의 인생, 또다른 날들의 시작》

(영풍문고), 한국 노인의전화와 동인출판사가 함께 내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좋은 습관》·《노후를 아름답게 맞는 123가지 지혜》를 비롯한 5권의 실버북 시리즈 등 출판도 활발하다. 동쪽나라의 경우, 법정의 《산에는 꽃이 피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해 노년독자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오디오북의 경우, 독서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계층을 위해 적절한 매체로 보인다.

노인계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이들 출판이 처한 가장 큰 장애는 제작비다. 노인을 위한 도서제작 경험이 있는 동인출판사 홍경운 편집장은 "노인을 위해 활자를 크게 하면 제작비가 증가한다"고 동쪽나라의 송윤섭 편집장 역시 "책에 비해 오디오북의 경우, 손익분기점이 상승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려움은 있지만, 노인대상 출판은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 한국 노인의전화 강병만 사무국장은 노인대상 서적에 접근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 "노인들은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글자보다는 그림을, 교양서보다는 실용서를 더 선호한다".

단순히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독서를 권하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책을 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인생활과학연구소 한동희 소장 역시 "인생의 각 단계에는 그에 걸맞은 인생주기 교육이 있는데 노년층은 은퇴를 위한 준비, 수입 계획, 건강 관리, 취미나 관심을 발달시킬 기회 제공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라면 노인들은 굳이 책을 읽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관심사라면 정보를 원한다. 따라서 현재 노인계층의 열악한 경제력에 가려진 그들의 관심사를 읽어내지 못할 경우, 10명 중 1명 꼴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미래에도 출판은 시행착오를 계속할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 미래가 바로 내년이라는 점이다.

—김연수 기자